

“종단 차원 찬불가 제정위 설립 시급”

‘불교음악발전 토론회’서 발제자들 한 목소리

“우리 역사에 살아 숨쉬는 불교음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을 적용한 불교음악을 개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불교음악 제정위원회가 종단차원에서 설립돼야 합니다. 불교음악을 엄격히 적용한 의식곡부터 랩, K팝 등을 차용한 생활찬불가까지 다양한 불교음악 장르의 육성이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법패 등 전통불교음악과 더불어 1920년대 백용성 스님의 찬불가 보급 이후 발전해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먼저 불교음악의 장르가 전통불교음악과 현대불교음악으로 나뉘며, 현대불교음악에서 의식곡과 생활찬불가로 나뉜다고 분류했다.

박 교수는 “생활찬불가는 ‘보현행원송’, ‘관세음의노래’ 등 이름을 되도록 불러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와함께 찬불가집 보급에도 전통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박 명예교수는 전통불교음악은 옛



이날 토론회에는 사찰합창단 단장, 불교음악작곡가, 출판사 대표 등 불교음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중들과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가 중앙대 교수도 토론에서 제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밝히며 현재 불교의 식곡에서는 기독교 찬송가의 색채가 강하게 불교전통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먼저 불교전통을 계승하는 불교음악 보급에는 조계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의 공통의식 도입 등을 통해 전통불교음악을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불교음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함과 동시에 의식곡이나 찬불가를 가르치는 전문인이 부족한 점이 불교음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동국대 교수는 사이의 강남스타

일과 소녀시대의 노래 등 K팝에는 한민족 특유의 리듬이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음악도 이같은 전통을 살려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이면의 휘몰이장단은 우리 불교음악 속에도 녹아있다”며 “글로벌한 불교음악을 통해 해외 불교국가에서 함께 합송하는 등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음악의 전통성과 대중성 강화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사찰 합창단 단장, 불교음악 작곡가 등 토론회자들은 개인교계에서 찬송가를 쉽고 대중적으로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 예배에서 찬송 대중이 모두 함께 합송하는 점 등을 예로 들고, 불교법회에서의 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박범훈 “대중 찬불가 보급위한 찬불가집 편찬 지원”

정부가 “전문인 부족이 불교음악 발전 저해”

박상진 “해외서 통용가능한 글로벌 찬불가 개발”

은 찬불가와 같은 불교음악을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교음악발전 토론회’가 9월 25일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부기 중앙대 교수, 박상진 동국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은 종단차원의 불교음악 제정위원회의 설립과 불교의식곡 연구, 생활찬불가집 편찬 장려책 등을 강조했다.

모습을 그대로 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곡은 불교전통을 반영, 생활찬불가는 K팝 등 다양한 장르를 차용해 대중에게 널리 불려지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박 교수는 전통불교음악, 의식곡, 생활찬불가의 기존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제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범훈, 정부기, 박상진 교수가 모두 연단에서

“호류지 금당벽화, 담징 아닌 백제인 제작”

이도학 교수, ‘백제와 고대 동아시아’ 세미나서 주장

일본의 불교 수용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 중 하나가 호류지(法隆寺)다. 호류지의 금당 벽화를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당 벽화를 그린 불모(佛母)는 담징 스님이 아닌 백제계 장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는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10월 1일 개최한 ‘백제와 고대 동아시아’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호류지 금당 벽화를 그린 사람은 백제계 장인 ‘도리부시(止利佛師)’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왜의 불교 수용과 백제계 사찰의 건립배경 및 성격’을 제하의 발표문에서 “일본 호류지 금당 벽화를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렸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하지만 담징이 호류지 벽화를 그렸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일본 역사서 기록을 사례로 들며 백제계 장인 ‘도리부시’를 조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반구고사편람(斑鳩古事便覽)에는 “금당 사방벽에 그려진 동방약사정토·서방미타정토도는 도리부시가 그렸다”고 기술했고, 헤이안 시대 편찬된 (칠대사일기(七代寺日記)에서도 법통사 금당 벽화를 그린 이로 ‘도리부시(止利佛師)’를 주목하고 있다. 가마쿠라시대 저술인(태사전사지(太子傳私記)에서도 (금당 벽화의) 불국경



일본 호류지 ‘금당벽화’

토를 그린 ‘도리(鳥)’라는 화사(繪師)가 이것을 그렸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도리부시는 아스카데라(飛鳥寺)의 석가여래상과 호류지의 석가삼존상을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도리부시는 호류지의 금당벽화까지 그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백제대사(百濟大寺), 백제사(百濟寺)의 존재도 주목했다. 이 같이 백제의 국호를 사용한 사찰은 개인 사찰이 아니라 왜왕이나 후대의 천황가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백제 왕족과 왜 왕족이 연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의 ‘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의 발전’ 기초강연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죽음 공평하다는 당위성 지닌 공동체가 행한 것이 수록재”

진관사 9월 23일, 수록재 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 기념 시연

“국형 수록재는 조선 초 왕조교체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원혼을 달래는 국가 차원의 행사였습니다. 이같은 수록재의 의미를 되살려, 수록재 재연이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진관사국형수록재보존회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9월 23일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록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맞아 기념 시연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행사에 앞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오늘 행사는 계승간, 세대간 배려와 소통의 부재로 드러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로 희생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크다”며 “수록재가 종교영역을 넘어 한국불교문화, 그리고 한국전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교육원장

현을 스님의 대독을 통해 “수록재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정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1주년을 기념해 다시금 당시의 수록재 의미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진관사수록재보존회 어장(魚丈)인 동희 스님과 여산(魚山)인 진성, 동환, 무비, 범일, 일구, 혜월, 기법, 지운 스님이 직접 국형수록재를 시연했다.

제2부 학술세미나에서는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불교민속과 진관사 국형수록재(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철학과 진관사 국형수록재(신규락 연세대 교수) △한국문화와 진관사 국형수록재(황후시 관동대 교수) △진관사 국형수록재의 연행과 의례 또는 민속적 의의(홍태환 중앙대 대구교수) △진관사 국형수록재 범패의 의식 음악적 기능(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진관사 국형수록재 의식무의 기능과 동작 분석(이애현 남서울



수록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진관사 수록재 시연 행사에는 300여 대중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스님들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수습에 수록재와 같은 국가위무행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 교수) △조선전기 진관사 수록사의 건축(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황후시 관동대 교수는 “죽음은 공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 공동체가 범윤리적 차원에서 진행해온 것이 바로 수록재”라며 “수록재 실행과 함께 그들의 아픔

을 함께 아파하며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아픈 곳은 진도 앞바다”라며 “모든 수록재는 팽목항 바다에서 스러진 가엾은 넋을 위로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례”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일불교문화학회, ‘군산과 일본불교’ 세미나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4일 오후 1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 불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원영상 교수의 ‘근대 일본의 종교정책과 군산’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군산 금강사 3대 아사노 테츠젠 선사·타카시나 로센 선사의 전정과정’ 등 논문 4편이 발표된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5월 31일 일본 불교사연구소 해체 이후 관련학자들이 모여 만든 학회다.

이번 세미나 후에는 학회 회칙 및 임원 인준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청룡사 관음보살좌상’ 등 2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김계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3호 ‘김계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원주 봉서사 향로전(鳳棲寺 香爐殿)에 봉안하기 위해 1655년에 조각승 조능(祖能)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보물 제1834호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坐像)’은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조성 목적, 제작자, 시·발원지 등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법패 소리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사심구재,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3시 ~ 4시 사심구재·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오후 4시 ~ 5시 30분 바라춤 - 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록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록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 (부평동)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역, 율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0월 중
-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